



금융투자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hslee@kcmi.re.kr)

목차

1. 금융투자산업의 글로벌화 현황 및 평가
2. Out-Bound 활성화를 위한 과제
3. In-Bound 활성화를 위한 과제

금융투자산업의 글로벌화 현황 및 평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현황(Out-Bo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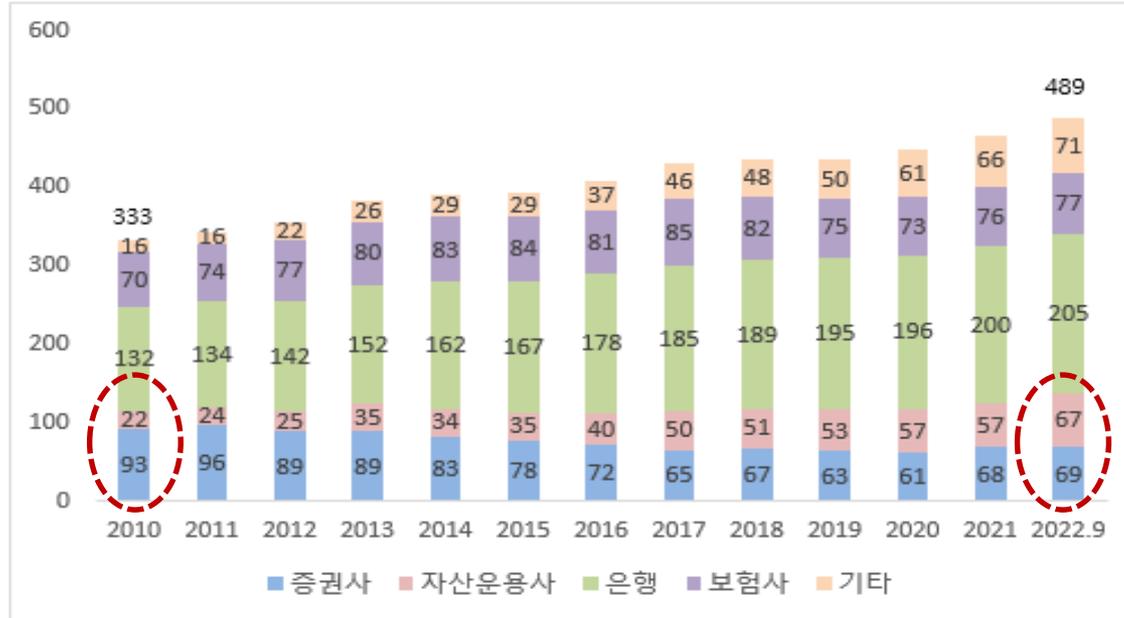
❖ 국내 은행,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해외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짐

- '22.9월 기준 외국계 금융회사 점포수는 489개로 2010년(333개) 이후 꾸준히 증가
- 유형별로는 현지법인(252개), 지점(105개), 사무소(131개) 형태로 진출

❖ 금투업권에서는 증권은 해외진출이 감소한 반면 자산운용사 진출은 큰 폭으로 증가

- 증권: 93개('10) → 69개('22.9) / 자산운용: 22개('10) → 67개('22.9)
- 증권:의 경우 현지법인 55개, 사무소 14개 / 지역별로 아시아 75%, 미국 17%, 기타 7%

업권별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국내 증권회사의 해외점포 자산 및 수익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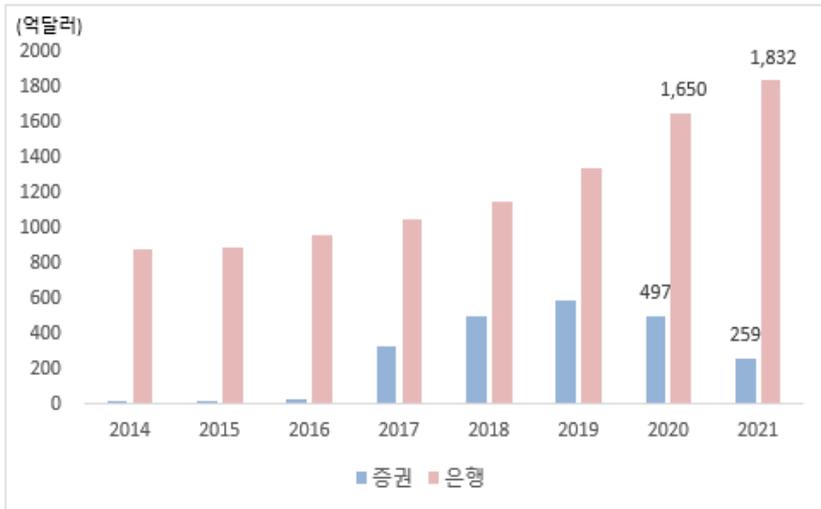
❖ 국내 증권회사 해외점포의 자산총계는 일시적으로 둔화

- Repo 축소 등의 이유로 국내 증권 해외점포의 자산총계는 최근 둔화세(497억\$('20)→259억\$('21))

❖ 반면 국내 증권회사 해외점포의 수익성은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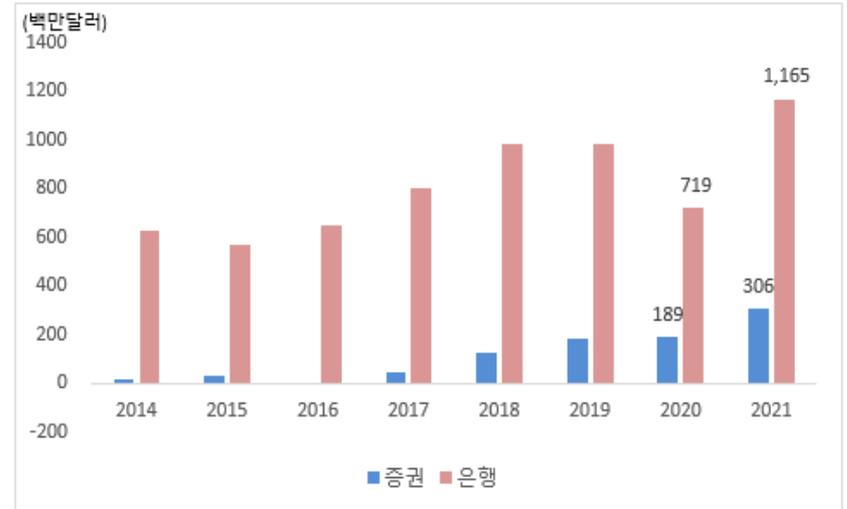
- '21년 글로벌 증시 활황에 힘입어 국내 증권회사 해외점포 순이익은 증가(1.9억\$('20)→3.1억\$('21))

국내 증권회사, 은행 해외점포의 자산총계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국내 증권회사, 은행의 해외점포의 순이익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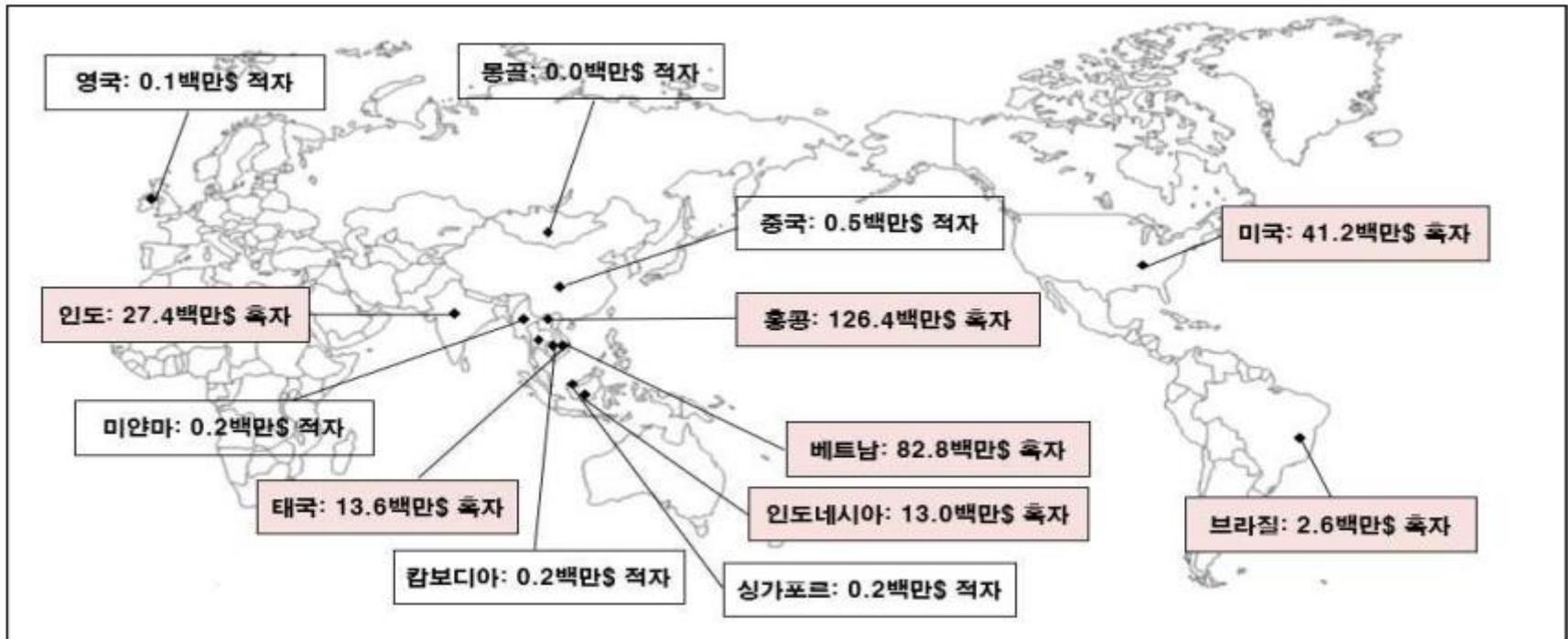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증권업) 국가별 해외 현지법인 손익현황

- ❖ 중국 외 아시아 국가에서는 거래 활성화 영향으로 흑자를 기록
 - 홍콩,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등에서 흑자를 기록
 - 중국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업제한 등으로 적자 발생
- ❖ 북미, 남미에서 흑자를 기록한 것은 긍정적 성과로 판단
 - 미국, 브라질 등에서 3년 연속 흑자를 기록

국가별 증권사 해외 현지법인 손익현황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 진출현황(In-Bo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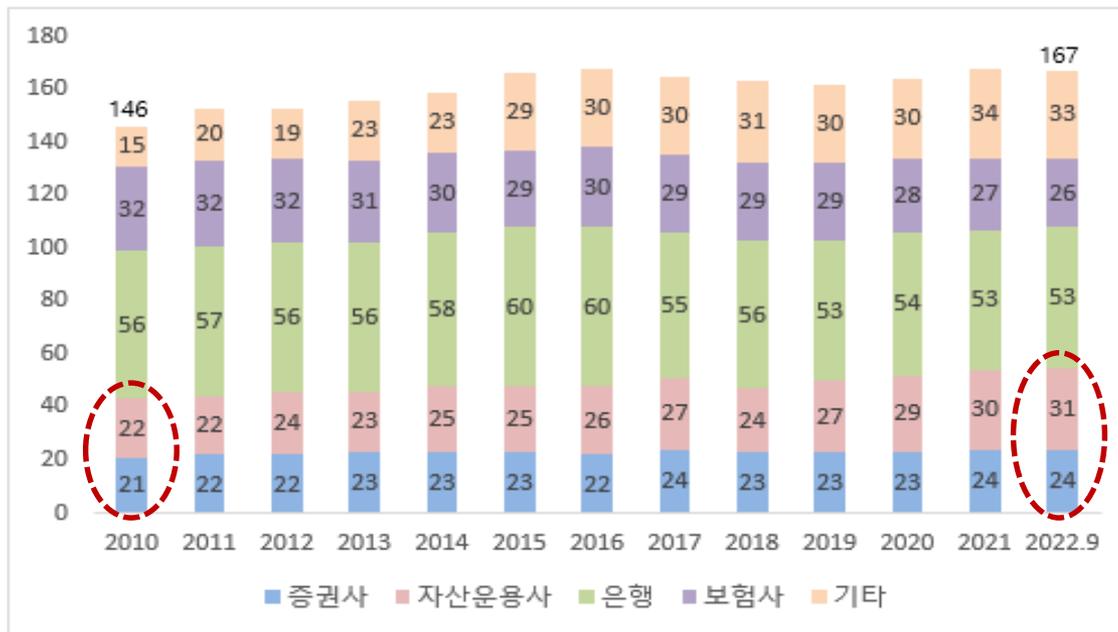
❖ 외국계 금융회사의 한국 진출은 소폭 증가에 그침

- '22.9월 기준 외국계 금융회사 점포수는 167개로 2010년(146개) 이후 증가 추세
- 유형별로는 법인(78개), 지점(59개), 사무소(30개) 형태로 진출

❖ 금투업권에서는 증권은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자산운용사의 진출은 꾸준히 이어짐

- 증권: 21개('10) → 24개('22.9) / 자산운용: 22개('10) → 31개('22.9)

업권별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점포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외국계 증권·자산운용사의 신규 라이선스 취득 현황

- ❖ **최근 5년간 IMC 증권을 제외하고 신규 라이선스 취득은 없음**
 - '21.3월 IMC 증권은 알고리즘 거래 등 신규 비즈니스 확대를 위해 라이선스를 취득
 - 최근 주요 시장조성자의 과징금 부과 개연성이 제기되자 IMC 증권은 본격적인 영업을 미루고 있음

- ❖ **중소규모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신규 라이선스를 취득했으며 수탁 규모 증가는 미비**
 - '21년에는 브룩필드운용(캐), 에이피운용(홍콩)이 신규 라이선스를 취득
 - '20년에는 셀레니언운용(미), 누버거버먼운용(미), 스프랏코리아운용(캐), 퀀트인운용(싱)이 진출

외국계 증권 및 자산운용사의 신규 라이선스 취득 현황

업권	회사명	시기	주요 전략
증권	IMC증권	2021년	알고리즘 거래/시장조성자
	초상증권	2017년	중국, 홍콩간 주식중개 등
	미즈호증권	2017년	DCM 사업 등
자산 운용	브룩필드 자산운용	2021년	대체투자운용 확대
	에이피 자산운용	2021년	일반사모투자/투자자문/투자일임 등
	셀레니언 자산운용	2020년	PE 전략/IPO 전략 등
	누버거버먼 자산운용	2020년	주식, 채권, 대체 등 종합자산운용업
	스프랏코리아 자산운용	2020년	에너지 및 인프라 투자
	퀀트인 자산운용	2020년	퀀트 기반 전문사모투자업

자료: 자본시장연구원, 언론보도 종합

외국계 증권·자산운용사의 철수 및 사업축소 현황

- ❖ **외국계 증권회사는 규제 강화 등을 이유로 철수 또는 사업축소를 결정**
 - 2010년대초 파생상품 및 ELW 규제 강화 등의 이유로 일부 외국계 증권회사가 철수를 결정
 - 최근 도이치증권은 글로벌 구조조정 등의 이유로 국내 주식사업부분을 철수

- ❖ **대형 외국계 자산운용사는 공모펀드 수익성 둔화를 이유로 철수 또는 사업축소를 결정**
 - 골드만삭스/JP모건/템플턴 등 대형 운용사는 공모펀드 수익성 둔화를 이유로 철수를 결정

외국계 증권 및 자산운용사의 철수 및 사업축소 현황

업권	회사명	시기	형태
증권	RBS증권	2015년	한국사업 철수
	노무라증권	2015년	ELW부문 철수
	BOS증권	2016년	한국사업 철수
	바클레이즈 증권	2016년	한국사업 철수
	도이치증권	2021년	주식사업부분 철수
자산 운용	골드만삭스 자산운용	2012년	한국사업 철수
	피델리티 자산운용	2017년	한국 주식부문 철수
	JP모건 자산운용	2017년	한국사업 철수
	프랭클린템플턴 자산운용	2021년	한국사업 철수

자료: 자본시장연구원, 언론보도 종합

금융투자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강점 (Strengths)

- 금융자산 축적 증가
-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 우수한 금융인적 자원

약점 (Weaknesses)

- 높은 세율
- 경직적 노동규제
- 룰 및 파지티브 방식 규제

기회(Opportunities)

- 홍콩 위상의 저하
- 아시아 신흥국 성장
- 디지털화: 핀테크 경쟁력

SO 전략

- ✓ NPS, KIC와 동반진출
- ✓ 신흥국 라이선스 취득지원
- ✓ 대기업과 동반 진출

WO 전략

- ✓ 저세율의 금융특구 설정
- ✓ 핀테크 특화 금융중심지
- ✓ 토큰 증권 등 신시장 개척

위협(Threats)

- 구조적 잠재성장률 둔화
- 주변국(미중러) 갈등확대
- 싱가포르의 급부상

ST 전략

- ✓ 가계자산 해외투자 활성화
- ✓ 현지화 전략 지원
- ✓ 단계적 원화 국제화

WT 전략

- ✓ 유연한 노동/금융 규제
- ✓ 해외 기업 상장유치
- ✓ 김치본드 활성화

Out-bound 전략 ←

→ In-bound 전략

Out-Bound 활성화를 위한 과제

고부가가치 금융산업으로 육성

Out-Bound 활성화

연기금과 동반진출

- ✓ NPS, KIC 투자시 국내사 활용
- ✓ 해외사무소 확대 및 협업 강화
- ✓ 현지 자산운용 전문가 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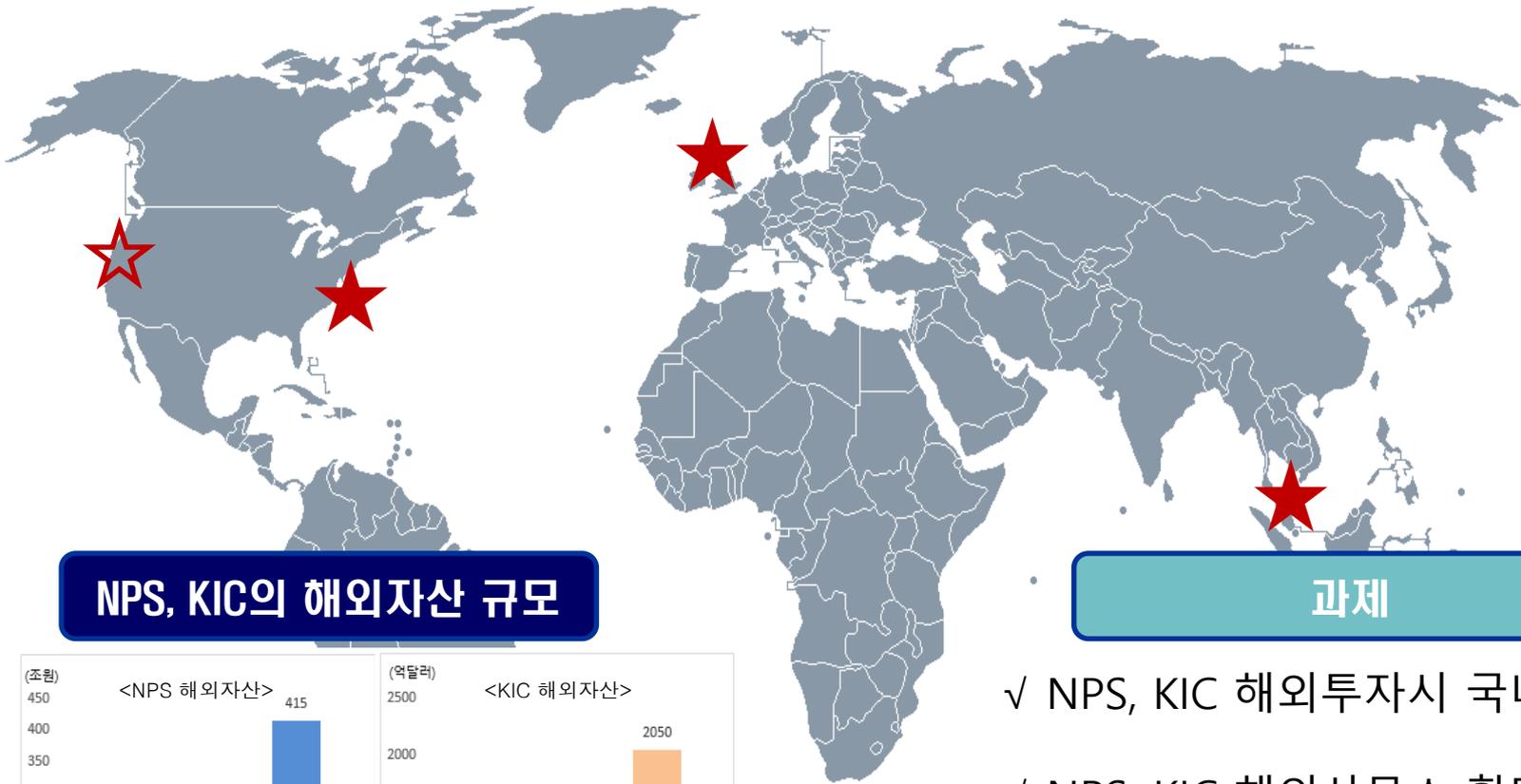
가계자산 해외투자 활성화

- ✓ 해외투자 세제 개선
- ✓ 글로벌 RA 플랫폼 역량 강화
- ✓ OCIO의 해외투자 역량 확대

해외법인 역량 강화

- ✓ 정부의 대외지원 강화
- ✓ 대기업과 동반진출 확대
- ✓ Cross-Border M&A 활성화

연기금, 국부펀드와 동반진출 확대



NPS, KIC의 해외자산 규모



과제

- √ NPS, KIC 해외투자시 국내사 활용
- √ NPS, KIC 해외사무소 확대 및 국내 금융회사와 협업 강화
- √ 현지 자산운용 전문가 양성

Out-Bound 활성화를 위한 가계자산 해외투자 활성화

세제 개선

- ✓ 해외투자 수단별 과세 차익 최소화
- ✓ 장기 해외 간접투자수단에 대한 세제 혜택 고려

RA 플랫폼 활성화

- ✓ 저비용 글로벌 주식, 채권, 대체상품 제공 확대
- ✓ 고객 맞춤형 생애주기 포트폴리오 제시

OCIO 역량강화

- ✓ 퇴직연금 등 주요 연기금 OCIO의 해외투자 비중 확대
- ✓ OCIO의 해외 자산배분 역량 강화

Out-Bound 활성화를 위한 해외법인 역량 강화

대외지원 강화

- ✓ 해외법인 현지화를 위한 정부 지원조직 강화
- ✓ 대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Give & Take 강화(예: KSP, KPP)

대기업과 동반진출

- ✓ 대기업 해외진출시 국내 금융회사 적극 활용
- ✓ 대기업과 협업을 통한 해외 실사 및 네트워크 강화

국경간 M&A확대

- ✓ 세제, 금융비용 지원을 통한 국경간 M&A 활성화
- ✓ 국경간 M&A 주선, 자문, 인수금융시 국내 금융회사 참여 독려

In-Bound 활성화를 위한 과제

고부가가치 금융산업으로 육성

In-Bound 활성화

디지털 금융중심지 추진

- ✓ 핀테크 및 데이터센터 허브
- ✓ 금융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 ✓ 토큰증권 및 IP금융 활성화

시장 참여유인 확대

- ✓ 해외 유망기업 상장 유치
- ✓ 김치본드 활성화, 교차 상장
- ✓ 외환시장 선진화
(MSCI 선진국 편입, 글로벌 외환 중개회사 유치)

인프라 개선

- ✓ 금융중심지 특구 설정
(세제, 노동규제 완화)
- ✓ 지역 맞춤형 허브전략
- ✓ 생활 인프라 개선
(영어 공용화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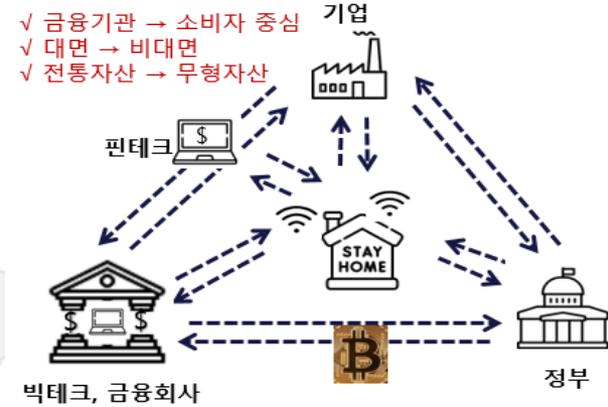
디지털 금융중심지 전략



왜 디지털금융 허브인가?

1. AI, 빅데이터 기술의 혁신
2. 우수한 핀테크 인력 보유
3. 토큰 증권, IP 금융 활성화
4. 데이터센터 등 우수 IT인프라
5. 아시아 인구는 전세계 1/2

디지털 혁신에 따른 금융산업 변화



과제

1. 핀테크허브 육성(예: 국회부지)
2. 데이터센터 확대
3. 금융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4. 토큰 증권 활성화
5. IP 금융 활성화

In-Bound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

주식시장

- ✓ 해외 유망 벤처기업 상장 유치 확대
- ✓ 혁신 금융상품 증개(STO, 특허, 데이터, API 등) 확대

채권시장

- ✓ 김치본드 활성화
- ✓ 글로벌 국채/회사채 교차상장 및 증개 확대

외환시장

- ✓ MSCI 선진국지수 편입
- ✓ 외환시장 거래시간 확대 및 외국계 증개회사 유치

In-Bound 활성화를 위한 기타 인프라 개선

세제, 고용 개선

- ✓ 법인세, 소득세 혜택이 부여된 금융중심지 특구 설정(예: 두바이)
- ✓ 고용 유연성이 보장된 금융중심지 특구 설정(예: 샌프란시스코)

지역특화 전략

- ✓ 서울: 핀테크 & 자산운용 허브 전략(예: 더블린)
- ✓ 부산: 동북아 파생상품 및 에너지 트레이딩 허브(예: 싱가포르)

생활인프라 개선

- ✓ 영어 공용화 확대(예: 영문 공시 확대)
- ✓ 외국계 임직원 주거 및 의료 서비스 혜택(예: 대출규제 완화)

감사합니다